

4주차

분단과 한국전쟁 체험

김 아 람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한국전쟁의 주요 국면과 결과

- 한국전쟁 전개 과정에서 주요 국면
- 한국전쟁의 결과

02. 폭격과 학살의 비극

- 노근리 사건과 미군 폭격
- 민간인 학살의 범주와 진상 규명

03. 군인이 된 사람들

- 국군과 인민군 경험 이야기
- 제2국민병과 국민방위군 사건

04. 기지촌 형성과 여성 이야기

- 기지촌의 형성 과정과 특징
- 기지촌 성매매 여성의 발생과 정부의 대응

05. ‘혼혈’ 아동을 내보낸 한국

- 해외입양의 배경과 특징
- ‘혼혈’ 아동을 향한 여러 면의 부정적 인식

06. 고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 고아의 상황과 ‘부랑아’의 생활
- 4주차 정리

3차시

군인이 된 사람들

학습목차

학습목표

- 한국전쟁에서 여러 형태의 군인이 있었음을 말할 수 있다.
- 전쟁으로 인한 군인들의 피해를 알 수 있다.

학습내용

- 국군과 인민군 경험 이야기
- 제2국민병과 국민방위군 사건

국군과 인민군 경험 이야기

국군과 인민군을 모두 경험한 사례

■ 김우종

- 1929년생
- 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월남민 구술생애사 조사연구’로
연세대 역사와공간연구소에서 구술



■ 김우종 - 월남민 구술생애사 조사연구

대학생에서 국군으로

“ 그 당시에 정훈국장이 나타나서 여러분 학생들 모두 다 전쟁이 끝나면은 다시 학교로 들어가서 훌륭한 공부를 다 하게끔 모든 조치가 다 잘될 것이다. 잘 싸우고 돌아와라 뭐 이런 식의 강연을 그 사람이 합디다. 어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인천까지 걸어 내려갔는데. 근데 일심국민학교에 다들 모였을 때에도 가끔 어디서 비명이 들려와요. 이게 참으로 어딜가나 그 집단적으로 젊은 학생들이 다 모이면은 일이 벌어져요. 좌익이나 우익이나 이거로 또 벌어집니다.

대학생에서 국군으로

심문하고, 고문하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아, 한밤중에 다 같이 행군을 해서 인천까지 내려가서 인천에서 LST라는
큰- 함정에 모두 우리가 실렸어요. 그래 거기서부터 부산까지 갔는데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

중국군 포로로 잡혀

- “ 우리가 포위를 당했어요. 남쪽으로 우릴 막았어. 남쪽으로 막았기 때문에 뒤에 산비탈이지만 그래도 뒷문이 있기 때문에 뒷문 열고 밖으로 나가서 산비탈로 도망쳐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도망치죠. ”
- “ 한 명만 어떻게 빠지고 다 포로가 됐어. 그렇게 됐는데 산 속에서 헤매고 헤매다가 ‘아, 이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다닐 일이 아니다.’ 저 멀리 보면은 중공군들이 많이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보여. 그래서 그 짐을 웬만한 건 다 버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참 미련스럽게도 책을 내가 갖고 전방에 간 거요. 그래 책을 다 버렸어요. ”

중국군 포로로 잡혀

- “ 그렇게 그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아마 한 달은 안 되지만 중공군하고 같이 지냈던 셈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참 어려운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이에요, 모두. 우리도 먹어야 되고 그 사람도 먹어야 되는데 저희들끼리 밥을 해서 먹는다는 것이 커-다란 통에다가, 이만-큼 큰 통에다가 밥을 해서 요만한 공기를 하나씩 들고 땡기면서 젓가락으로 퍼 먹대요. 그래 그 자기네들끼리 먹고 그 다음에 우리들 먹으라고 줍니다. ”
- “ 그리고 다시 맨발로 또 끌려 땡기기 시작을 했어요. 가면서 또 나중에는 그게 한 달은 안 갔을 거예요. 인민군에게 인계가 됐어. ”

인민군에 인계

“ 처음에는 뭐 다른 일보다는 집 짓는 일로 일이 대단히 많았고 힘이 들었고. 그러면서 틈틈이 교육이라는 걸 좀 시켰는데 뭐 큰 교육은 아니고. 공산주의가 어떻다 뭐 특별히 그런 건 교육을 안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우리들한테 협조하도록 신뢰를 자꾸 쌓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더러 다들 모아놓고 거기서 공산주의 사회가 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쉬운 얘기로 똑같이 다 네꺼 내꺼 없이 먹고 산다든가 뭐 이런 얘기라든가. “

미군 폭격 경험

“ 거기에 미군기가 와서 하늘을 한 번 한 바퀴 돌고 가대. ... 와서 빙-빙 돌아가면서 급강하해서 우리들 앞에 마치 재봉틀로 바느질을 해듯이 “드르르륵” 하면서 그냥 사격을 하고 위로 올라가고 로켓트 포탄을 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미군의 전략이라는 것은 자기네가 일단 후퇴한 지역은 적지로 간주해서 그냥 용단폭격 해버리니까. 그래도 그건 정말 잘못이지. 그래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나는 어디 그 한가운데 있어서 그랬는지 빨리 도망을 못 치고 나도 열-심히 화-흡어지면서 도망친다는 것이 숲으로 들어가서 몸을 감추는 거였는데,

미군 폭격 경험

“ 거기서 할 수 없이 그저 도망치다가 나는 다치지 않았는데 도망을 치다가 미군기는 또 오고 하니까 계속해서 움직이는 놈은 눈에 보이니까 사격을 당할 거고. 차라리가만히 있자. 거 벌레들이 죽은 척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도망치다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이렇게 직강하해서 사격을 하고 올라갔다 그 다음에 저, 다른 고 다음 비행기가 내려 올려고 할 무렵에는 딱 멈추고 그 자리에 가만히.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에 들어가 가만히 있고. ”

‘해방전사’라 불리다

“ 우리는 해방전사라고 불렸어. 자기네들 말로는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건데. 그 좋은 위로적인 의미로 그렇게 부르곤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아 우리를 인민군으로 맨드는 구나.’
그래 그 뒤로 그렇게 해서 차차로 몇 명씩 몇 명씩 대소가 한 천여 명 갈려면은 여러 차례 가거든요.
날 마지막까지 안 들어가 나를. 그 나는 왜 거길 그렇게 해서 인민군복을 입고 전방에 나가고 싶어,
했냐면은 전방에 가야지만 내가 남쪽으로 탈출할 수가 있어요. “

탈출 후 국군 복무

“ 그때 죽을 뻔 했어요. 급류에 휩쓸려서 또 혼이 났지만 또 그 갓, 한 쪽에 무슨 풀이라든가 뭐 나무라든가 바위라든가 이런 거 겨우 붙들고 겨우 살아서 기어 나오고. 그리고 이대로 절대로 갈 수 없다 판단을 하고 옆으로 나와서 그 잡초들이 우거진, 넝쿨들이 우거진 그 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겼어요. ”

그 후

- 포로 경험 후 살아남은 생존자
- 포로로 인민군에 들어갔다는 점 때문에 정부로부터 보훈 대상자가 되지 못함

제2국민병과 국민방위군 사건

제2국민병

- 서동휘
 - 북한 황해도 출신
 - 2015년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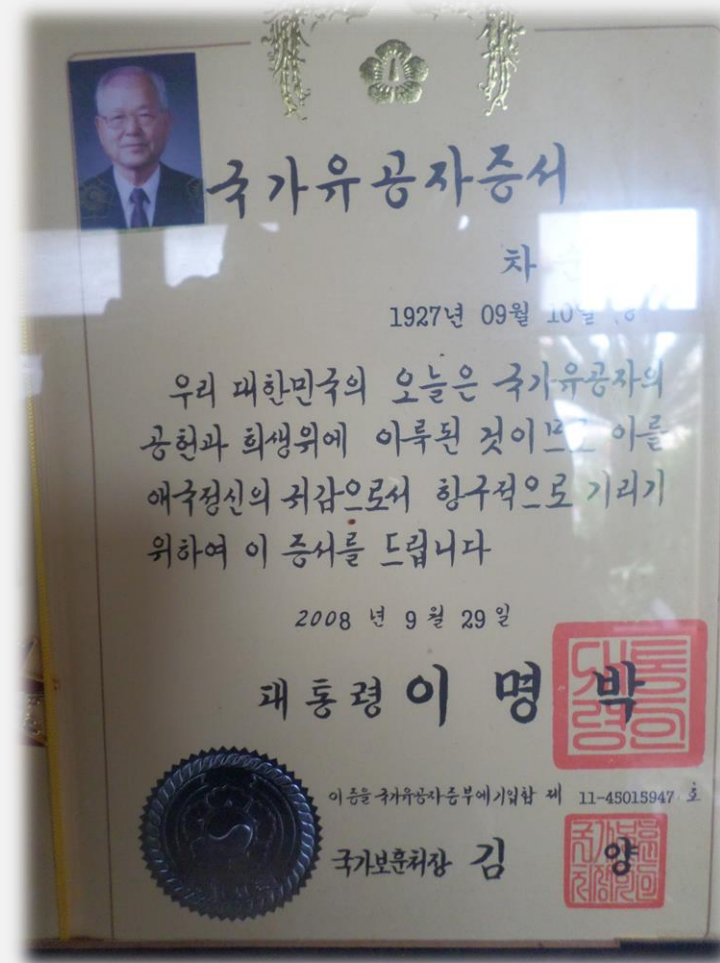


제2국민병

“ 서울에 도착해갖고 그때는 오고갈 데도 없고 그저 그 전시 상황으로 상당히 복잡했지 그래 갖고 군인으로 입대를 이제 헌병들이 있는데 군인으로 입대하겠다고 하니까 헌병들이 데려다 가서 저 했는데 군인이 아니고 그때 제 2국민병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다 편입시켜 갖고 제주도로 이제 들어가 갖고 군대로 간 사람 가고 이제 해산했지, 거기서. ”

제2국민병

- 차순홍
 - 1927년생, 평양 출신, 제주도 거주
 - 2008년 참전 경력으로 국가유공자 지정
 - 2015년 구술



■ 차순홍 - 월남민 구술생애사 조사연구

제2국민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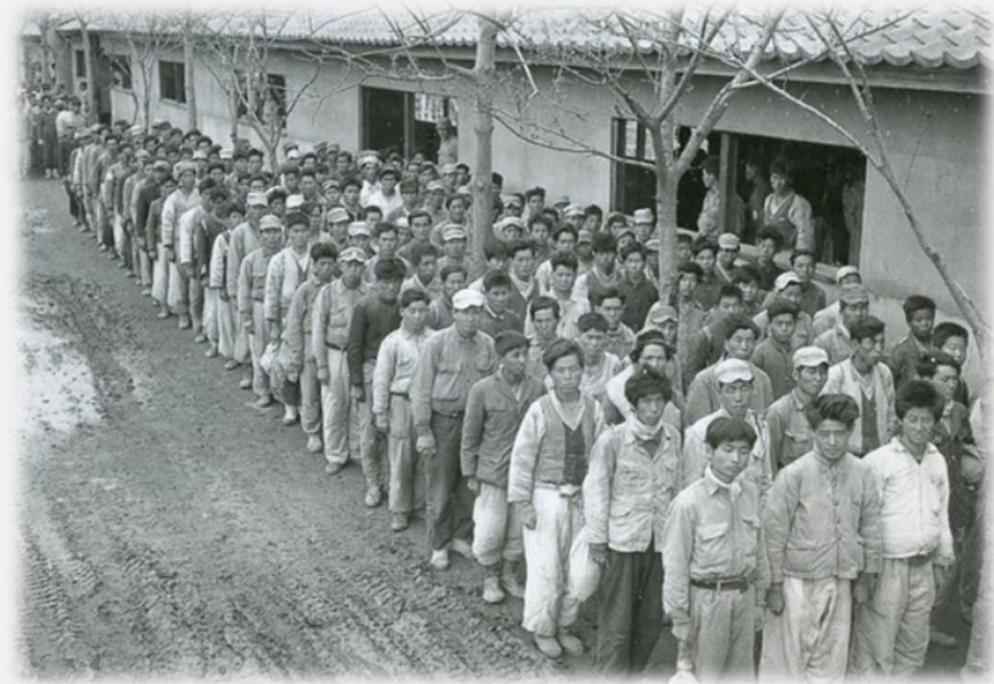
“ 방위군 여기 1월 달에 와가지고 3월 달에 끝났어요. 짧았어요. 서귀포에서 한 달 반, 성산포에서 한 달 반. 그렇게 하곤 그 모슬포. 제1훈련소 간부교육대로 들어갔어요. 입소했어요. “

제2국민병

“ 저희도 훈련소에서 4개월 훈련 받는데도 먹은 게 너무 작아요, 밥이. 좌우간 이 밥그릇에 밥 들어오는 거 보면 이렇게 깎아서 들어오는데 한 여섯 숟, 다섯 숟갈 먹으면 다 없어져요. 군대 숟갈이 크잖아요. 그걸로 한 뺨 숟갈 먹으면 없어요. 하고 무슨 국도 들어왔는데 건더기는 하나도 없고. 소금국만 들어오고. 근데 그거 뭐 나라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후에 알아보니까. 다-떼먹었어요. 군량미가 한 사람 앞에 하루 뭐 2홉인가 나온대요. 밥을 이만큼 줘야 된답니다. 근데 뭐 연대장 떼먹지, 대대장 떼먹지. 전부 지프차로 싣고 나간답니다, 쌀을. 이놈저놈 다 떼먹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후에 아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배굶는 겁니다. ”

국민방위군 사건

- 전쟁 병력을 보충하 위해 정부는 제2국민병 족, 국민방위군 설치, 군인 모집
- 피난민이 징집되기도 함
사령관과 간부를 대한청년단(우익단체) 간부로 구성



국민방위군에 끌려가는 사람들

국민방위군 사건

- 1.4후퇴 시기 지역별로 국민방위군이 남하
- 간부들이 보급품을 착복하여 수만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
- 책임자들 처형
- 제주도에 간 제2국민병 경험
- 제주도 지역의 제1훈련소에서도 이 사건으로 예산 배정이 안 됨

마무리

- 이번 시간
 - 국군과 인민군을 모두 경험한 사례
 - 제2국민병과 국민방위군 사건

다음 차시에는

- 기지촌 여성의 이야기

[출처01]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aks.aks.ac.kr/rsh/dir/rview.aspx?rshID=AKS-2014-KFR-1230004&callType=srch&dataID=AKS-2014-KFR-1230004_DES@023

[출처02]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aks.aks.ac.kr/rsh/dir/rview.aspx?rshID=AKS-2014-KFR-1230004&callType=srch&dataID=AKS-2014-KFR-1230004_DES@039

[출처03] © 차순홍

[출처04] Wikimedi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A%B5%AD%EB%AF%BC%EB%B0%A9%EC%9C%84%EA%B5%B0_%EC%A7%95%EC%A7%91%EC%9E%90%EB%93%A4.jpg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이봉규·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